

대림 제3주일

기도서 216면 (가해)
제1 독서: 이사35, 1-6a
제2 독서: 야고1, 7-10
복 음: 마태11, 2-11

순정이

“너 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네 갈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마태11, 10)

강론

마음속의 구세주인가?

박 창신신부 / 효자우전천주교회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가까이 오시는 메시아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역사현실과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베격하고 마음속에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관념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알고 대응하는 신앙 보다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관념의 메시아를 확수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는 현실을 떠난 관념의 세계에만 관심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고, 노래를 불러도 현실을 직시하는 노래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니다. 예술작품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념으로 길들여진 사회는 부패와 타락과 억압과 착취와 비인간화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에 따라서 신앙도 관념적이고 이분법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고 영과 육을 철저히 나누고 있습니다. 한쪽은 철저히 베격하고 한쪽을 더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앙에서는 세상을 보기가 힘듭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잡한 세상 일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문제나 사회의 모든 부조리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회문제 거론 그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평화를 위해 오셨던 예수아기(루가 2, 14)의 평화를 마음의 평화로만 규정하고, 평화에 대한 신앙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배제합니다.

예수시대의 유다는 로마의 평화가 선포된 곳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로마의 권력앞에 생존권을 잃고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갈구하는 시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평화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만한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평화 속에서 소외된 보잘 것 없는 자들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평화에 저항하시고(루가 8, 30-33), 부요한자들에게 나눔의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지배 계급의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평화는 십자가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맘속에만 규정지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족 문제,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예수의 무리가 되어 역사 안에 예수님을 꼭 탄생시켜야 하겠습니까.

소리

그것이 민생 치안인가

정치 판도가 풀볼건이더니 또 다른 곳에서 큰일을 해내고 말았다.

민생치안을 총괄하고 있는 경찰고위 간부가 권총으로 난동을 부렸으니 말이다.

계급도 높은 사람이다.

경무관이던 우리 전북도의 경찰총수인 경찰국장 급이다.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는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경찰고위 간부가 흑백을 구분치 못하고 보기만 해도 혐오감이 생기는 권총을 휘둘렀다니 10만 경찰관에게 큰 오명을 남겼다.

57세의 나이면 할아버지도 많다.

내연의 처인지 모르지만 28세면 딸이나 따름없다.

틀림없이 28세 정도의 딸이나 아들이 있음이 분명하다.

몇년동안 농락하고 즐겼으면 그만이지 마음잡고 시집간 남의 부인이된 유부녀 집까지 찾아갔다니 그 얼굴을 신문말고 실물로 보고 싶어진다.

우리 주위에는 이사람 말고도 그같은 사실이 더 많을 줄로 알지만 직책이 그렇고 나이가 더 그렇다.

어찌하여 우리 사회가 그토록 찢겨가고 있는지 한번씩 생각해 볼일이다.

본인을 이미 파면조치 했다지만 지휘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

머지않은 1주일 후면 아기예수가 탄생하는 기쁜 날이다.

더이상 시끄럽고 세인을 놀라게할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군다나 이번 주일은 자선의 주간임을 명심하고 남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행하자.

순정이 산책



판공 성사란 ?

판공 성사란 우리 한국 교회만이 사용하는 특수 용어이다. 이는 우리 교회가 관례적으로 실시해온 부활전과 성탄전에 실시하는 고해 성사를 의미한다.

원래 교회법에서는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989조)”라고 규정하므로 한 번의 성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한국 교회의 오랜 관습상 봄, 가을 두번의 성사로 관례화 된 것이다.

그동안 이 판공 성사 제도는 여기저기 흩어져 교우촌을 이루며 살고 있던 교우들이 공식적으로 사제를 만나 고해를 하므로 지속적인 신앙 관리와, 신심 생활 성장에 큰 도움을 주어왔던 제도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많았고, 지금도 많다. 이중 두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첫째는 이 판공 성사를 교회 재정과 너무 긴밀하게 연관 시켜 왔다는 점이다.

밀린 교무금이나 기타 교회에 납부할 여러가지 헌금을 거두어 들이는 또 다음해의 교회 재정을 공고히하는 방편으로 삼으므로 야기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생겨났다. 심지어 “판공 성사표 사라 간다” “돈 없으면 천당도 못가겠더라” 등의 말들이 오고 갈 정도이니까.....

두번째 문제는 은밀하고 진솔하게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성사가 연례 행사처럼 치루어지므로 고해성사 본래의 진지함이 퇴색된 채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거룩한 것을 너무 속되게 취급하는 것 같다. 참회의 눈물과 결단, 각오가 넘쳐야 할 고해실이 시장속을 방불케 하는 요란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 눈살을 찌프리게 한다.

오늘의 판공성사 제도-이래도 좋은지 깊은 연구가 필요할 때이다.



성서와 함께

57. 구약의 형성 (I): 성문서집 -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그러나 다른 한편 이스라엘의 지혜가 고대 근동의 지혜와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자가 지혜의 근본을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 두었다는 사실이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진실된 종교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근동의 지혜문학에서 확연하게 구분해 놓은 현자와 우자의 대비는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안에서 하느님의 경외 유무에 따라 의인과 악인 사이, 진실한 종교와 거짓 종교 사이의 대비로 발전하였다. 한 마디로 고대 근동의 지혜는 순수한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데에 반하여 이스라엘의 지혜는 종교적 인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에서 지혜를 하느님의 속성을 지닌 하나의 위격으로 부상시키게 된 때는 바빌론 귀양 이후부터이다. 잠언의 서문적인 1-9장, 특히 8,22-31에 보면 신적인 지혜가 하나의 위격체로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으로부터 현존하시고 창조 사업에 하느님과 더불어 동참하신다고 되어 있다. 욥기 28장에 보면 지혜는 하느님과 구별되는 존재이며 지혜의 비밀스런 소재는 하느님 홀로 아신다. 집회서 24장에서 지혜가 스스로의 신분에 대해서 밝힐 때, 지금처럼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하느님과 함께

거처한다고 말한다. 지혜서 7,22-8,1에선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지혜가 전능하신 분이 내뿜은 영광이요, 그분의 완전함의 표상이라고 정의한다. 이리하여 지혜는 신적인 속성을 지니면서도 하느님과 구별되는 위격적 존재이다. 지혜에 대한 이상의 개념은 구약의 강력한 유일신 사상에 비추어 매우 충격적이고 생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중세 이후의 사변적인 삼위일체 신학을 즉시 여기에서부터 도출해 내는 것은 무리이고, 일차적으로는 우선 하나의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이 문학적 표현이 하느님 안에서의 복수적 위격을 인정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도 부정할 수 없다. 요한 복음 서두에 소개된 “로고스 찬가”는 구약의 “신적인 지혜”처럼 말씀이 하느님 안에서 그러나 하느님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영원으로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다고 증언한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로는 “하느님의 지혜”라는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부여한다(고린 전1,24).

히브리 성서와 70인역 희랍어 성서의 차이, 히브리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희랍어 성서의 본문들에 대해서는 다음 대목에서 다루겠다.

— 그동안 집필 해주신 정태현 신부님 감사 합니다. —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약혼복·무대복·마춤대어
비디오·아인스넵촬영
신부화장
유 순례 (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 82-2347

수시모집·원장 직접 개인지도

전주노라노한복·양재

홍 패션 학원

원장 김 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
☎ 86-2715

정통이태리풍 통가족패션의 정상

이동화·케주얼

일민화·악세서리

카이저전주특약점

전주우체국 현대안경원 옆
☎ 83-0598

훨씬얕고 가벼워진 초박형렌즈
140년 전통 서독칼제이스

전주현대안경원

(교우 특별우대)
김 문곤 (옌센)
전주우체국 후문 앞
☎ 83-8844-84-3744

잡 관!

버리는 연습

평소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써오던 조미료를 푹 끓자니 그건 참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미료가 칠판을 뚫는다는 이웃의 말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일체 푹 끓던날 모든 음식은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미료가 없던 시절도 음식을 먹어 왔는데 어느 사이 우리의 혀는 조미료 맛에 길들어져 있었다는 것과 그 맛을 포기하기엔 무척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껏 누려온 맛의 하나를 버려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했고 돈 들여 산 조미료를 과감하게 몽땅 버리던 날 저는 어린애 처럼 하찮은 승리에 기뻐했습니다. 쓴맛이 점점 쓰다고 느껴지지 않을 무렵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 했는데 그건 아주 담백하고 순수한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써어 없어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때로 포기하고 버려야만 얻을 수 있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주는 달콤함과 편리함, 게으름, 미워하는 감정.....등 그리하여 깨끗이 비워진 가난한 마음밭에 사랑이란 꽃씨를 심어야만 그 꽃이 잘 자랄 수 있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점점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미료를 버리게 되어 음식 본연의 순수한 맛을 찾을 수 있었듯이 가난한 마음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은총으로 가득차 오실 것입니다.

인후동성당/배형신(로사리아)

교 구 소 식

1. M.B.W(그리스도 공동체 수련회) : 기초과정 실시, 일시-1990. 1. 9(화)~11(목) 장소-천호피정의 집. 참가비-3만원 접수-교구청 교육국(85-0041) 출발-1월9일 9시30분 가톨릭센터
2. 이리·익산 소년 꾸리아 연차총친목회 : 12월17일 오후3시(꾸리아 회합후) 장소-이리 신동성당
3. 이웃돕기 하루차집 : ME주관으로 이웃돕기 하루차집을 엽니다. 장소-가톨릭 센터 휴게실 12월25일(월) 오후1시~오후9시까지
4. 제4차 선택 : 일시-90. 2. 9~11 장소-천호피정의 집, 대상-미혼젊은이 접수-교구청 교육국
5. 축! 호성동 성당 신설 : 12월31일부터 인후동 성당에서 분리됩니다. 주소(성당) 560-210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산 8-5 전화(0652) 78-1140(사제관) 560-210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 신동아A.P.T 1동 212호 전화(0652) 78-0075
6. 용머리 성당 사제관 전화번호 변경 : 84-8123

요십이(854) 김병오



신태인성당
(남) 사무장 채용공고
자격 : 1. 고졸이상학력 25세이상
명역필자(남) 2. 영세한지 5년
이상의 신자
제출서류 : 지필이력서 1 통 영세증
명서 1 통 본당신부추천서
접수기간 : 89. 12. 31일까지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환영

이태리 천연대리석 성물판매
성마리아성물센터
채 수 현 (시몬)
가톨릭센터 1층
☎ 87-6708

한글, 한글
기초부터 개별지도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 기정 (요섭)
효자성당 옆
☎ 82-6492

◀ 새로운 비디오 ▶
세상아 깨어나라
젠 베르데 공연녹화 비디오
구입처 : 성바오로서원
가 격 : 18,000원

◀ 새로나온 카세트 ▶
어린이 성탄 캐롤
제 작 : 성바오로 미디어
합 창 : 대치동 성당 어린이 성가대
독 창 : 김승유(베드로)
편곡지휘 : 이종철 신부 가격2,000원
구 입 처 : 성 바오로서원

에복·숙녀복·하이케주얼·홈웨어
◎ 60% 할인가격으로 연중판매
(교우특별우대)
세네상 상설할인매장
서 금순 (세사리아)
코오롱상가 2층
☎ 83-4375, 87-0057

주단·침구
혼수전문
부인주단
전주시 전동 남문옆
☎ 84-7294

황수경산부인과
여 의 사 황 수경 (크리스티나)
산부인과전문의 이 승렬 (엘 리 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인 석
수녀원 82-9662

1. 본당판공성사: 18일 7시30분 2. 세례식: 23일 7시30분 3. 세례대상자 집중교리: 19일~22일 7시30분 장소-교육관(사제관 지하실) 4. 예비자면접: 20일 오전10시~12시, 오후3시~6시 5. 금상리 판공성사: 18일 9시 미사11시 아중리 판공성사 19일 3시 미사5시 6. 노송ME정기총회: 17일 8시 장소(신교육관) 회비2,000원 7. 고3학년피점: 21일 9시30분~22일 4시
8. 지모회 임원선출: 회장-김명선 부회장-최은남 총무-한정순 회계-분선자 9. 축 "결혼": 23일 1시 신랑-우영주 신부-김일자(아가다) 10. 감사합니다: 성가대 오르간 1대구입 성가대 간식비 찬조 의자카바 11. 꾸리아 연총친목회: 26일 7시 Pr별로 4분미만의 장기자랑 준비.

☐ 지난주부흥금: 663,980원 ☐ 교무금: 410,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군
수녀원 86-3454

1. 자신의 날 2차헌금: 오늘,평신도 강론: 안운정 (사바스) 총무님
 2. "축" 열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 오설회: 오늘 공식미사후
 4. 세대주 면담: 19일 오후3~6시 저녁미사후 5. 성탄판공성사: 20일 저녁7시30분 6. 부녀회: 21일 오전10시 7. 초·중·고 등부 성탄행사: 22일 저녁7시 8. 복권행사: 24일 저녁7시
 9. 감사: 제의1별 집담회 이창숙 최성자 10. 사회: 24일 오후2시
 11. 본당신부님 영명축하식: 24일 공식미사후
- 금주전례: 해설-이상인 독서①육태수 ②박진희 방헌-육태수 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옥남 독서①박상기 ②장명자 방헌-박상기 씨 부부
차침미사전례: 해설-황만규 독서①신일균 ②윤귀자
방헌-신일균 씨 부부
25일 공식미사: 해설-윤귀자 독서①안운정 ②서석님
방헌-안운정 씨 부부
- ☐ 지난주부흥금: 557,740원 ☐ 교무금: 2,280,0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 ※ 오늘은 자신의 날: 2차헌금 있음
1. 청년회, 성가집회: 공식미사후
 2. 가정방문: 19(화)-원색장, 색장
 3. 판공성사 일정: 20(수)-신라, 수월, 색장, 21(목)-의암, 마치, 원색장 22(금)-어두, 남관, 공기, 내정 23(토)-신흥, 백암, 서당 성사시간-오전10시~12:30, 오후2~5시 30분
 4.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5. 성경 읽기: 창세기 22장~35장
 6. 금주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강덕용 ②이석남
방헌-박하용, 유춘근 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양주대 ②김순이
방헌-하태승, 오철규 씨 부부
 7. 사목회장 당선: 김충석(야고보)씨 수고하시겠습니다.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명 웅
수녀원 84-2276

- ※ 오늘은 대림제3주일(자신의 날)
1. 회의: 성모회-오늘 공식미사후
 2. 알림: ①봉성제-12월20일(수) ②판공성사일정-12월16일(토) 초중고학생, 12월17일(일) 직장인, 12월19일(화) 1반-10반, 12월20일(수) 11반-20반, 12월21일(목) 21반-27반 및 기타반 ③성탄절야미사시간안내-12월24일(일) 오전6시, 10시30분 자정미사 저녁11시, 25일(성탄) 오전10시30분, 오후7시 ④중·고생 서학의 밤-23일(토) 저녁미사후 ⑤주일학교 어린이 성탄절 야제-24일 오후8시
- ☐ 지난주부흥금: 429,750원 ☐ 교무금: 775,000원

*용머리

사제관 84-8123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1. 유아세례: 24일 오후2시(사무실 신청)
 2. 성탄절야미사: 24일 11시(주일 저녁미사 없음) 성탄분일미사-25일 10시
 3. 사제관 이전: 101동-505호(전화번호변경 84-8123)
 4. 혼인개신식: 성가정축일 12월31일(사무실 접수)
 5. 레지오 연총 친목회: 19일 저녁미사후

6. 청소년사: 12월18일~23일까지-주공3단지 서편(네청소) ☐ 지난주부흥금: 301,980원 ☐ 교무금: 414,000원 ☐ 신축헌금: 15,381,000원(입금 14,371,000원)

수익 및 흑포제작 판매 합니다.

연락처: (용머리성당 87-0441)

*전동

사제관 본당 86-5789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선 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구

- ※ 성전보수 헌금바람. ※ 오늘은 자신의 날로 2차헌금 있음
1. 레지오: 오늘 오후2시 2. 성화회: 18일(월) 오후6시30분
 3. 세대주 면담 및 판공성사 안내: 19일-풍남동 20일-경원동 다가동, 중앙동 21일-남동충동 기타동 22일-합동판공성사(저녁미사후) 4. 성모회: 20일(수) 오전11시
 5. 고3(수험생)을 위한 성지순례: 23일~24일(1박2일) 사무실에 신청바람
 6.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2시
 7. 나라를 위한 기도 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8. 자정미사 및 성탄미사안내: 자정미사-저녁11시 예수성탄대례 일 미사안내-새벽미사 없음
 9. 사목회 총회: 27일(수) 저녁8시
 - ☐ 금주보수비헌금액: 1,420,000원 ☐ 현재모금총액: 87,932,011원 ☐ 금주보수비헌금액: 없음 ☐ 현재신입총액: 197,006,299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기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기

- ※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하라. 수녀원 87-0229
1. 성모회: 공식미사후 2. 지모회 바자회: 공식미사후 3. Cu회: 오후2시 4. 청년회: 오후4시 5. 유아세례: 오후3시 6. 성탄판공성사: 18일(월) 오전10~12시, 오후2~5시, 7~9시(전사자)
 7. 사목회: 23일(토) 오후8시-90년도 사업계획
 8. 울뜨레아: 다음주 공식미사후
 9. 성탄절야미사: 오후11시, 축제행사 및 경품권 추첨-오후7시-10시 성탄절미사안내-공식미사와 저녁미사만 있음
 10. 신축금 신청사: 안영애 10만원, 최성용 5만원(전동)
 11. 면담일정: 20일-오전19, 20 오후-21, 22, 23 21일-오전24, 2 오후-26, 27, 28 22일-오후29, 30 신축금신입총액: 149,759,836원
 12. 차주전례: 박중구 복사-박해군 윤인홍 봉헌-이화옥 부부
- ☐ 지난주부흥금: 388,370원 ☐ 교무금: 443,500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종 훈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훈
수녀원 84-4804

1. 축 열세: 오늘 오후6시 축하미사후 7시 축하연: 미사후
 2. 성탄판공성사(17) 오후2~5시, -중고생, 국고생, 출타직장인 19(화)-오후7시 미사후-신자 친제(손님 신부님 초청) 3. 사예비자반 모집: (1) 2계주 부녀 교리 사자 4. 국고생 교리(예비자 첫영성체사): 매 토요일 오후4시 5. 중고생 교리(예비자, 첫영성체사): 매 토요일 오후7시 6. 반별 성가경연대회: 21(목) 오후7시 미사후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7. 레지오 단원 인차 친목회 협조에 감사합니다. 8. 모임안내: 모니까회 대례사회-금주 수요일 11시 9. 국고생 성탄 대축일 축제: 22(금)후6시 중고생 성탄 대축제-23(토)후6시 미사후 10. 성탄대축일 미사안내: ①자정미사 24일 밤10:30 ②9:30 ③11:00 ④후7시 11. 금주최소담당: 효동마을
- ☐ 지난주부흥금: 946,430원 ☐ 교무금: 2,127,000원
☐ 페루선교사 위한 헌금: 548,360원 ☐ 중고생헌금: 45,63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두
수녀원 87-0711

1. 영세식: 23일(토) 오후 2:00 2. 사목회: 저녁미사후
 3. 꾸리아, 율례회, 새벽회: 공식미사후 4. 특별고백: 오후2:00 공무원, 회사원 차주 모임: 반석회
 5. 반희장 기도회 준비 모임: 22일(금) 어머니미사후
 6. 특별강의: 강사 안스텔라 수녀님: 23일(토) 저녁미사후
 7. 판공일정: 19일(화)-14:00 여매, 만질 19:00 송정 20일(수)-19:30 무궁화, 음성 14:00 신주1, 2 21일(목)-19:30 중앙 22일(금)-19:30 태백 22일(금)-14:00 상개리 강소미사 금주전례: 해설-강진장 독서①조용준 ②문경자 기도-권일만 표선례
- 성탄자정미사: 해설-김인규 독서①표근중 ②김영자 기도-이중권 백숙명
- ☐ 지난주부흥금: 470,350원 ☐ 교무금: 1,399,000원
☐ 2차헌금: 226,800원